

# 대한전자공학회

96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대한전자공학회는 회원수 1만6천명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학술단체이다.  
대한전자공학회는 전자공학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학술지를 발간하고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자공학 관련분야의 첨단기술발전과  
공학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자공학 교육·연구  
세미나에서 토론에 열중하고  
있는 토론자들의 모습

「대한전자공학회」는 재적 회원수 1만 6천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전문 학술단체로써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학회는 전문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자 정보·통신 공학 관련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과 공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영문 논문의 발간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자공학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다.

## 연혁

학회는 1946년 11월에 대한전기통신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초대회장에 황갑성 체신부 전무국장이 취임하였다. 이를 토대로 6.25사변과 5.16을 거치는 동안에도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2대 회장으로서는 1950년 이재근회장이 취임하여 3대 회장을 연임하였다. 그러다가 1963년 4월에 전자 정보·통신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정회원 2백16명과 학생회원 54명으로 「대한전자공학회」로 개칭하고 전자공학회지의 창간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득하였다.

1965년에는 5대 오현위회장이 취임하였고 통신전자기술전문위원회의 유

선통신, 무선통신, 전자응용, 반도체 부품 및 응용회로, 의용전자 및 마이크로파 분야로 6개 분과를 설치하였다. 1966년 회원수가 4백46명으로 늘어나고 학회지발간이 연 4회로 증편되었다. 1970년 9월 국내외 과학자 3백50여명이 참가한 서울국제전기전자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1백1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73년 8월 부산·경남지부를 창립하고 지부장으로는 부산대학교 박의열교수가 초대지부장을 역임하였다. 1974년에는 경북지부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정기호 지부장이 초대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1974년 8월 학회지와 별도로 전자공학회 잡지 창간호를 발행하였으며 1975년에는 회지 연 6회, 잡지 연 3회씩 발행하였다.

1977년에는 강남에 위치한 과학기술회관 사무실로 입주, 현재에 이르고 있다(대표전화 : 553-0255, Fax : 552-6093). 1986년 3, 4월에 전자공학 학회지를 전자공학회 논문지로 개칭, 전자공학회 잡지를 전자공학회지로 개칭하고 전자공학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1990년 6월 연 4회 발행하는 영문 논문지(KITE Journal of Electronic Eng.)를 창간하였다. 1991년 1월부터 전자공학회지를 연 12회 발행으로 증편 및 전자공학회 논문지를 A, B로 나누고 각각 연 12회 발행으로 증편하였다.

1995년부터는 전자공학회논문지, A, B를 각각 증편하여 연 12회씩 발행하고 전자공학회지를 연 12회, 영문논문지를 연 4회로 증편 발행할 예정이다.

1978년부터 매년 하계 및 추계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해오면서 발표되는

〈표 1〉 회원의 소속별 분포

(1994. 11월 현재)

소속	회원분포율
대학교 (전문대학포함)	38.49%
정부투자기관 / 연구소	18.54%
산업체	16.98%
학생	25.97%

논문의 편수나 논문의 수준이 매회 발전하여 이제는 가히 국제적인 위치와 있다.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전자공학회는 세계적인 학회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회원과 조직

회원구성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적 회원 수는 1만 6천여명에 이른다. 회원의 소속별 분포는 아래 〈표1〉과 같다.

학회 조직기구로는 회장 1인(이문기 연세대학교수) 및 부회장 4인(이상철 한양대학교수, 윤종용 삼성전관(주)사장, 김수중 경북대학교수, 김정덕 전자부품 연구소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이 있고 이사회, 감사, 평의원회, 사무국, 지부 및 학술연구 위원회가 있다.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부회장은 기획 및 총무, 학술 및 편집, 지부관리, 산학협동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며 학회의 제반 업무사항,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등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2인으로 구성되며, 학회의 통상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평의원회는 전직회장 및 지부장을 포함하여 70인 이하

로 구성되고 임원선출, 정관개정,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부회장 직속의 기획 위원회를 비롯하여 9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학회의 학술 및 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국장 운영제)은 학회의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지부로는 지부장 1인과 약간명의 지부 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지역의 학술활동 및 학회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부산·경남지부, 대구·경북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충북지부, 충남지부, 강원지부, 제주지부 및 국외(일본)지부로서 9개지부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금년에는 러시아, 중국 및 미주지역 해외지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학술연구위원회는 통신연구회, 전자교환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연구회, 제어계측연구회, 전자계산연구회, 반도체 재료 및 부품연구회, 회로 및 시스템연구회,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연구회, 화상처리 및 텔레비전 연구회, 광파 및 양자전자 연구회, CAD 및 VLSI연구회, 음향 및 신호처리연구회, 인공지능, 신경망 및 퍼지시스템연구회, 전력전자연구회 및 기술정책연구회로써 15개 연구회로 이루어져 있다.

학회의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논문지에 논문제출 자격이 주어지고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고 학회에서 발행되는 전자공학회지, 전자공학회 논문지, 전문기술지 및 기타 연구회지를 받아볼 수 있다. 특별강연회 및 학술강연회와 첨단기술 단기강좌, 기술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최신 기술정보의 교류가 가능하고 연구회별로 연구 프로젝트

트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회원에게는 지부에 소속되어 학술활동을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전문분야별 연구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학회지에 회사소개를 통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산학연 협동체제의

〈표2〉 94년도 학술논문발표현황

구분	발표논문편수
하계종합학술대회	227편
추계종합학술대회	386편
통신 연구회	171편
마이크로파	110편
전자교환	128편
회로및시스템	27편
전력전자	27편
제어계측	75편
신호처리	287편
반도체	226편
광파	77편
화상처리	244편
인공지능	56편
의용전자	32편
CAD	48편
전자계산	35편
총계	2,156편

공동연구지원이 가능하고 업체 기술 지문을 통한 산학협동이 가능하다.

주요 사업

전자, 정보 통신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학술 연구 발표, 강습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학술지, 도서 및 기술 정보지의 발간, 학술적, 기술적 연구 조사와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등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회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자 공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 사업이다. 먼저, 학술 활동으로는 하계와 추계로 나누어 연 2회 개최되는 종합 학술대회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하계 종합학술대회에서 2백27편의 논문이,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는 3백8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통신연구회를 비롯한 총 15개의 학술연구위원회에서는 각 연구회 별로 연 1회 이상 단독 또는 합동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94년도 각 연구회별 논문 발표상황은 통신 분야 1백71편을 포함하여 총 1천5백4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국제학술대회는 상호 연관성이 큰 전문분야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86년 최초의 한·일 합동학술대회(Joint Technical Conference)를 개최하였고 매년 개최지를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5년의 제 10회 JTC-CSCC는 일본 구마모토대학교에서 열린다.

또한, 과학의 달 기념 특별강연회와 정보 문화의 달 확산을 위한 학술강연회가 매년 4월과 6월에 걸쳐 개최되며, 전자, 정보, 통신 및 관련 분야의 최근 기술 동향과 새로운 기술 정보의 제공 및 교류를 위하여 전문가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단기강좌, 워크숍, 심포지엄 등의 기술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ICEIC '95(The 199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s and Communications)학술대회도 95년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연변에서 북한학자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학회는 출판 활동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 회원들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전자공

학회논문지」는 전자, 정보, 통신 및 관련 분야를 A, B 그룹으로 나누어 연 12회 24권을 발간하고 있는데, 94년에는 4백여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95년에는 약 5백50여편으로 증편할 예정이다.

회원 상호간의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해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의 최근 연구 동향과 기술 해설을 게재하는 「전자 공학회지」는 연 12회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외국과의 정보 교류를 위하여 영문으로 발간하는 「영문논문지」는 외국의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연 2회 6월과 11월에 발간하고 있는데, 95년도부터는 연4회로 증편되어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학술연구위원회 산하의 전자계산연구회에서 「컴퓨터 기술」을, 통신연구회와 전자교환연구회에서는 「텔레콤」이라는 기술전문지를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기타 간행물로서는 대학 및 전문 대학에서 전자공학 관련학과의 교육 및 교과과정의 현황, 제도 개선 및 보완 등에 관한 연구 내용과 기술 자격 검정 제도 개선 방법 연구 등 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 교육 연구지인 「전자공학교육대학편」과 「전문대학편」을 각각 연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및 기술인들을 위한 기술 서적, 표준 전자 공학 용어 사전 등을 발간하고 있다. 학회의 또 다른 주요사업 중의 하나는 국제협력분야이다.

외국과의 정보 교류 및 국내 기술 발전을 위하여 연간 수회에 걸쳐 외국인과의 공동 세미나, 연구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다른 기관의 개최도 후원하여 국내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학 협동 및 기술 자문 사업은 관련분야의 전략적인 연구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산학 협동 체제로 연결시켜 많은 공동 연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며, 학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의 기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95년도에는 학회지 및 논문지의 전자 출판화를 정착하고 논문을 증편 게재하며, 5개 그룹별로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전자, 정보, 통신 공학 분야의 교재 및 참고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며, 해외 지부의 신설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표3〉95년도 주요 행사 계획

구분	제목	일시·장소
학술활동	1995년 과학의 달 강연회	'95. 4월 중순
	1995년도 정보문화의 달 행사	'95. 6월 초
	1995년도 하계 종합학술 대회	'95. 6. 24
	1995년도 한·일 합동학술 대회 (JTC-CSSC '95)	'95. 7. 18~20 일본구마모토대학교
	제 3차 전자 정보 통신 국제학술대회ICEIC '95)	'95. 8. 14~19 중국 연변
	1995 아시아 태평양 Microwave 학술 회의('95 APMC)	'95. 10. 10~13 한국과학기술원
	1995년도 반도체 및 CAD 국제 학술 대회	'95. 10. 15~18 스위스 그랜드호텔
단기강좌/워크숍	1995년도 정기 총회 및 종합 학술 대회	'95. 12. 9
	Power PC에 관한 단기강좌	3월
	CDMA에 관한 워크숍개최	5월
교육연구세미나	Analog VLSI Design단기 강좌	6월
	대학 분과 위원회	'95. 8. 25~26 삼성전자종합기술원
회원친목활동	전문 대학 분과 위원회	'95. 7월 초
	전자가족 친선체육대회	'95. 10. 22 충남대학교

특히, 95년도부터는 학회 회원간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전자가족친선체육대회'를 마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95년도에는 10월 22일 충남 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995년도 분야별 주요 행사 계획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학회의 발전방향

학회는 당초의 설립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자, 정보, 통신 및 그 관련분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 과학 기술은 급격한 전자공학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의 전환기에 서 있으며, 학회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전통과 업적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대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바탕 위에서 학회의 운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첫째는 전자공학의 국제적 발전에 대한 미래 지향적 시각을 학회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회원을 위한 최고급의 평생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며, 셋째는 양질의 기술적이고 학술적이며 전문화된 출판물을 공급하

는 역할을 활발히 유지하며, 넷째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자공학의 공헌이 지대함을 홍보하고 기술자의 사회적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다섯째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포함한 학회의 고객들께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학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기본 전략 위에 다음과 같은 학회의 구체적 중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우편과 컴퓨터 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며, 전자 게시판(go kite) 운영을 통한 학회의 홍보와 행사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며, 멀티미디어 기술과 전자 출판의 저변 확대와 정착을 위해 힘쓰며, 응용 기술 위주의 평생 교육과 산업체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방 지부 활성화와 해외 지부를 설치하여 정보 흐름의 원활화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문논문지 발간의 확대와 외국학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국제 공인화를 추진하고, 국제 학술회의를 적극 주관 유치하며, 산업체, 학계, 연구소 사이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언론 및 홍보 매체를 통한 초·중고생에 대한 전자공학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회 기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회원의 권익 보호에 힘쓰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자공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공학 관련 분야의 발전도 필수적이므로,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통신학회, 정보과학회 등의 인접 학회와도 회원의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㉔)